

영어어용론연구와 교수실천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박사 부교수 최경철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는 리해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써먹을수 있도록 학습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197페이지)

어용론은 언어정보교환에서 온갖 오해를 극복하고 명백한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는 언어과학분야이다. 그러므로 어용론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해당한 정황과 계기에서 호상교제를 원만히 진행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수 있게 외국어교육내용을 꾸리고 그를 효과적으로 배워주기 위한 교수방법을 탐구하는 문제는 외국어교육의 질을 높이며 학생들의 외국어실천능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논문에서는 영어어용론연구에서 제기되는 이론적문제들과 그에 대한 교수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명하려고 한다.

어용론을 연구하려는 시도들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였다.

1938년 언어철학자 찰즈 모리스가 자기의 저서 《기호리론기초》에서 처음으로 학술용어로서의 어용론이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모리스가 제시한 어용론이라는 개념은 언어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것으로서 그후 수십년간 이 용어는 언어철학분야에만 국한되어 쓰이였다.

모리스의 견해는 당시 유행되였던 행동주의기호리론에 토대한것으로서 그후 1940년에 출판된 《기호, 언어와 언어행위》라는 책에서 어용론은 일정한 언어행위에서 나타나는 기호와 그 기원, 기호의 쓰임과 역할을 취급하는 기호학의 한 분야라고 다시금 강조하였다.

그후 1948년에 철학자이며 논리학자인 루돌프 카네프는 어용론이 언어사용자와 언어적단위와의 관계뿐만아니라 언어적단위가 가리키는 의미와의 관계로 취급해야 한다는것을 보충하였다.

카네프의 견해에 따르면 기호학은 순의미론, 순문장론, 어용론의 3대구성을 가지며 모든 실질적인 언어자료에 대한 연구는 어용론의 영역에 들어가고 어용론에는 기술어용론(descriptive pragmatics)이 한개 구성부분으로 있어야 한다.

모리스의 기호리론에 관한 논문과 때를 같이하여 오스트리아의 언어심리학자 칼 뵐러(Karl Bühler)는 자연언어에 대한 어용론적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자기의 언어리론에서 그때까지 없던 새로운 언어연구방법을 도식화한 오르가논-모형을 착안하고 자기의 어용론적견해를 피력하였다.

뵐러는 자기 모형에서 3가지 요소 즉 송신자, 수신자, 대상과 내용을 설정하고 언어기호에 3가지 기능을 할당하였다.

첫번째 기능인 표현기능은 송신자의 관점에서 볼 때 기호(징후)에 의해 무엇인가가 표현되거나 송신자가 기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기능이다. 실례로 시인이 시를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것을 들수 있다.

두번째 기능인 호출기능은 수신자의 관점에서 볼 때 기호(신호)가 수신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다. 실례로 광고판은 그것을 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광고에 실린 상품을 사도록 자극한다.

세번째 기능인 묘사기능은 대상과 내용의 관점에서 볼 때 기호(징표)가 대상과 내용을 묘사하는데 복무하는 기능이다.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세계와 자신을 련결시키고 세계에 대하여 묘사한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이와 같이 뵐러의 견해는 전통적으로 언어학의 기본목적을 기호-대상사이의 추상적인 관계에 두고있던 리론과는 반대로 어용론적수단을 도입하여 언어사용자들사이에서 기호가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을 밝혔다. 그의 이 견해는 비록 언어학계에서 뒤늦게야 인정을 받았지만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뵐러는 언어의 이러한 3가지 기능에 관한 학설을 내놓은것으로 하여 어용론창시자의 한사람으로 되게 되었다.

모리스와 카네프시기 어용론연구에서 기본과제는 어용론의 범위확정, 특히 어용론과 의미론의 호상관계문제였다고 볼수 있다. 이 문제는 그 당시는 물론 그 이후시기 오랜 기간 학계의 관심사로, 학자들사이의 론쟁거리로 되어왔다.

그 대표적실례로 1954년에 바 힐렐(Bar Hillel)이 어용론의 연구대상으로 제기한 《찾아보기단어》(지시어)에 관한 리론을 들수 있다.

바 힐렐의 견해에 의하면 어용론의 연구대상은 《I am here now.》의 I, here, now나 《This is wonderful.》의 this와 같은 지시하는 단어(지시어)이다. 이 단어들은 언어환경을 떠나서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수 없는 모호한 단어들이다. 바 힐렐은 바로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지시》의 의미를 연구하는것을 어용론이라고 하였다.

어용론에 대한 언어학계의 관심속에서 1977년부터 네델란드에서는 정식 《어용론잡지》(“Journal of Pragmatics”)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많은 나라들에서 자기 민족어에 토대하여 어용론을 활발히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언어교제, 언어행위에서 문장의 의미기능에 학계의 주의를 끌어난 사람은 영국의 언어철학자인 오스틴이었다. 그는 1962년에 발표한 자기의 저서 《말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How to Do Things with Words”)에서 언어행위리론을 제기하였다.

물론 오스틴의 언어행위리론은 이때에 처음으로 제기된것은 아니며 그는 이에 앞서 당시까지 언어철학에서 절대시되어오던 론리-의미적진가조건(truth value)을 언어에 대한 리해의 중심으로 보던 관점을 반박하여 1955년에 《언어행위를 론함》이라는 특강을 하였다. 이 강의가 있는 이후 오스틴은 수행문리론을 거쳐 언어행위를 세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것을 언어행위3분설이라고 하였다. 오스틴은 언어행위3분설을 내놓음으로써 언어행위리론의 토대를 구축하고 언어교제에 대한 어용론적분석의 본격적인 길을 열어놓았다.

1967년에 그라이스는 어느 한 대학에서 진행한 강의에서 회화함의리론을 제기하였으며 쉰은 그후 1969년과 1975년에 걸쳐 간접언어행위리론을 내놓고 오스틴의 리론과 그라이스의 리론을 결합시켜 언어행위에 관한 리론, 언어교제에 관한 리론을 더욱

풍부히 하였다.

부랑, 레빈슨, 리취 등 학자들도 그라이스의 회화함의리론에 보충적인 연구결과들을 발표하였다.

현재의 어용론연구는 이들이 제기한 테두리내에서 이론적연구를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확인할수 있는것은 언어교제에 대한 어용론적연구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전제조건이 어용론의 영역과 연구대상문제라는것이다.

모리스-카네포로부터 레빈슨-리취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어용론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이 과정에 어용론의 영역이나 연구대상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는 어용론과 의미론의 계선이 확정되었다.

의미론과 어용론의 차이는 의미론이 《X는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X mean?)를 연구하는 반면에 어용론은 《X로 당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 you mean by X?)를 연구한다고 한 리취의 글에서 명백히 알수 있다.

지금까지의 어용론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우선 그것이 입말과 교제참가자들을 한 평면상에 놓인 객관적관찰대상으로 보면서 주체의 지위와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입말을 관찰하지 못한것이다. 입말교제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하면서도 그 요소들을 객관시하고 주체의 주동적지위와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입말이 결정되는것으로 보지 못한것은 선행한 어용론의 본질적약점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선행한 어용론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또한 인간의 언어활동을 사회적과정으로 보지 않고 기호적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정황적인 결과물로 보는것이다.

인간의 언어활동은 사회와 력사, 생활과 풍습, 관습과 심리 등과 결부된 사회적현상이다. 그러나 선행한 어용론연구에서는 입말을 교제참가자들과 련관시켜보면서도 기호로서의 기능을 중시하였고 언어의 사회적성격과 기능에 대하여 무시하면서 미시적인 좁은 언어정황에만 매달리었다. 그러면서 사회언어학적연구와 구별한다는 점에서 언어의 사회적성격을 배제하고 언어생활의 좁은 틀안에서 언어기호의 운동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다나니 언어의 사회적측면이 홀시되거나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어용론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언어연구는 언어구조에 대한 연구로부터 언어사용에 대한 연구로 방향전환을 하였으며 이것은 대상으로서의 언어 그자체에 대한 연구로부터 그 대상을 사용하는 주인인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언어를 연구하게 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2. 본 론

론문에서는 어용론의 본질, 영어어용적의미, 회화함의, 언어환경과 영어어용적의미의 실현, 영어지시어, 영어어용적전제에 대하여 밝히며 영어교수실천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들을 해명하려고 한다.

2.1. 어용론의 본질

어용론(Pragmatics)이란 해당한 정황과 계기에서 사람들이 할수 있는 말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사람들의 언어행위를 살펴보면 아무때 아무데서나 함부로 망탕 하는것이 아니며 더우기 이유와 근거없이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생활의 논리, 사상의 논리, 행동의 논리에 맞게 말하는데 습관되어있기때문에 말을 할 때에 언어행위의 논리적과정에 대하여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아도 어용적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하는 말이 사실에도 맞고 리치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도덕관념에도 부합되는것임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대화문장을 만드는데 신경을 쓰게 된다.

어용론에서는 특정한 정황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말하며 거기서 쓰인 말의 진짜의미가 무엇인가를 연구한다. 다시말하면 특정한 정황과 계기에서의 언어사용방식과 말뒤의 의미에 관한 이론을 탐구하는것이 바로 어용론이다.

어용론에서는 표현된 언어구조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연구하는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 무엇을 파악할수 있는가를 연구한다.

2.2. 영어어용적의미

어용적의미란 말뒤의 뜻, 언어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말의 진짜뜻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용적의미는 표현된 말자체의 의미가 아니며 그 의미의 한 부분도 아니다. 표현된 말 자체의 의미는 변함없이 말속에 있지만 어용적의미는 여러가지로 나타날수 있으며 언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것이 변할수도 있고 때로는 없어질수도 있는것이다. 예를 들어 《It's cold here.》에서 말자체의 뜻 《여기는 춥다.》가 이 말속에서 변함이 없지만 어떤 특정한 언어환경에 따라 이 말은 《창문을 닫으라.》, 《불을 때라.》, 《외투를 입으라.》, 《다른 방으로 가자.》 등의 어용적의미로 변화될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언어환경에서 벗어나 이런 말을 하면 우와 같은 의미를 가질수 없게 된다.

그러면 말은 어떻게 되어 여러가지 어용적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언어가 구조자체에서의 다의성뿐만아니라 언어행위적인 뜻에서도 다의성을 가진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다의성이란 일정한 언어수단이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있는 성질이다. 우리가 말하는 어용적의미에서의 다의성은 언어행위적인 뜻에서 언급한 범주로서 어디까지나 동적인것이며 가변적인것이다. 언어에서의 다의성의 존재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언어의 이 다의성은 구체적인 언어행위로 실현된 말과 글에서는 단의성으로 나타난다. 다시말하여 말과 글로 표현된 온갖 언어수단의 특정한 언어환경속에서의 실질적인 의미는 오직 한가지뿐이다.

어용적의미는 어용론의 중요한 연구내용의 하나를 이룬다. 어용론은 언어체계(어음, 문법, 의미 등)에 근거하여 언어자체가 나타내는 의미를 연구하는것이 아니라 언어환경

에 따라 나타나는 말의 진짜뜻인 어용적의미를 연구하며 말의 실제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언어행위에서 어용적의미는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로, 어용적의미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직접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무엇을 의미할수 있는가를 추리할수 있게 한다.

둘째로, 어용적의미는 같은 단어가 몇가지 의미를 가지는가를 해석하는것이 아니라 한 단어가 가지고있는 몇개의 가능한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뜻》을 설명할수 있게 한다.

셋째로, 어용적의미에 대한 추리는 넓은 의미에서의 뜻같은 문장들을 이루고있는 단어들의 뜻풀이를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게 한다.

2.3. 회화함의

회화함의(conversational implicature)는 회화에 암시되어있는 뜻 즉 실지 언어사용에서 말의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말뒤에 내포되어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뜻을 말한다.

흔히 언어교제에서 우리는 사용된 말의 문자그대로의 의미와 그것이 언어행위에서 실지 의미하는것간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그러면 발언자가 함의를 어떻게 만들어내며 또한 상대방이 발언자의 함의를 확실하게 이해하리라고 어떻게 믿게 되는가. 이러한 공정의 추리뒤에 있는 심리과정을 밝혀내기 위하여 나온 개념이 회화함의이다.

예: Sarah: Can you tell me the time? (시간을 대줄수 있습니까?)

Ann: Well, the train has left just now. (저, 기차가 방금 떠났는데요.)

앤은 자기가 정확한 시간을 모르지만 일부 정보를 제공하여 썰리로 하여금 시간을 대략 추측하게 하였다. 말하자면 기차가 방금 떠났다는것을 통하여 지금 몇시쯤 되었을것이라는것을 암시하였다. 이러한 의미는 앤이 한 그 말자체에서는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이 실례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의미론은 오직 교제하는 말에 대한 해석을 줄수 있으므로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해명할뿐 그러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해석하지 못하지만 어용론은 회화함의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것이다.

회화함의에 대한 이론은 우리가 언어를 그 체계에 근거하여 언어자체가 나타내는 뜻을 연구하는것이 아니라 언어환경에 근거하여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하는것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2.4. 영어어용적의미실현에서 언어환경의 역할

언어환경이 말의 어용적의미실현에서 노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언어환경은 언어적단위들의 다의성을 해소시켜준다.

언어환경은 언어수단의 다의적현상가운데서 일정한 환경속에서 쓰인 단일한 뜻을 지적하여준다. 그렇기때문에 다의성은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개별적언어수단의 의미가 언어행위에서 쓰인 의미는 철저히 언어환경과 결

부시켜야만 정확히 식별된다는것이다.

례: We are making all efforts to ensure that our software products do not have any bugs in them. (우리는 우리의 프로그램제품들에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영어단어 bug는 원래 《곤충》, 《빈대》라는 뜻을 가지고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하고있으므로 《오류》 혹은 《결함》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실례는 다의적문장이 어느 뜻으로 쓰이였는가 하는 문자상의 뜻으로는 알수 없으며 오직 언어환경과의 연관속에서만 구체적인 자기 뜻을 리해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둘째로, 언어환경은 소리같은말의 어용적의미를 명백히 하여준다.

소리같은말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이 발음 또는 철자에서 같지만 뜻에서 서로 다른 단어들을 말한다.

소리같은말이 반영하는 개념을 식별해주는 결정적역할을 하는 언어환경은 문맥과 장면이다.

례를 들어 ring(반지)과 ring(전화)은 소리같은말로서 《Give me a ring.》의 의미는 《나에게 반지를 하나 달라.》 또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달라.》를 의미할수 있다. 하지만 언어환경에 따라 이러한 의미는 명백히 전달된다.

셋째로, 언어환경은 뜻이 모호하게 나타난 애매한 문장의 정확한 뜻을 제시하여준다.

언어환경은 문장의 구조적제한성으로 하여 뜻이 모호하거나 말의 뜻이 지적하는 대상이 정확치 못한 문장이 어느 뜻으로 쓰이고있는가를 식별해준다.

실례로 《Fine for swimming here.》라는 글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가에 나붙어 있다면 《여기서 수영을 하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경고문으로 되겠지만 수영장앞에 있다면 《여기는 수영하기가 좋다.》는 뜻으로 리해될것이다.

이처럼 언어환경은 모호한 문장의 의미도 인차 해석할수 있게 해준다.

넷째로, 언어환경은 야유의 상반되는 의미를 식별하여 리해할수 있게 한다.

야유는 보통 그 문자상의미가 긍정이기때문에 언어환경을 떠나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리해할수 없다.

실례로 《A precious friend you have been.》(너는 참 훌륭한 친구였어.)라는 말은 문자상의 뜻으로 보면 친구의 소행을 보고 치하하는 말이다. 하지만 친구로서의 의리를 저버리고 너절하게 행동한것을 아니꼽게 보면서 말했다면 조소나 비꼬는 뜻을 나타낸다. 만일 언어환경을 홀시하고 문자상의 말뜻 그대로 리해한다면 조소하는 말을 칭찬하는 말로 여기는 정반대의 결과를 빚어내게 될것이다.

다섯째로, 언어환경은 생략문에서 생략된 성분들을 리해할수 있게 한다.

언어환경은 전달하는 내용이 완결되지 못하여 뜻헛갈림이 일어날수 있는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들을 재생시켜줌으로써 문장의 정확한 의미전달을 담보해준다.

2.5. 영어지시어

지시어는 어용론의 중요한 구성내용의 하나이다.

지시와 지시어사이에 언어행위와 지시수단과의 상관성이 존재한다.

지시(deixis)란 말그대로 무엇을 가리킨다는 뜻이다.

어용론에서 말하는 지시어에는 지시정보를 나타내는 단어와 단어결합이 포함된다.

언어교제에서 지시는 정보내용의 골격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지시가 본질에 있어서 사물의 존재형식과 움직임 그리고 그것을 다루고 개조변혁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을 직접 가리켜주는 정보이기때문이다.

모든 정보내용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이 어떻게 얼마동안 진행되는가?》 또는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된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이루어지자면 반드시 사건,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 정보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에 오른 사람에 대한 지시가 명백하여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지시정보의 기본대상은 사람과 시간, 장소로 된다.

따라서 어용론은 인칭지시, 시간지시, 장소지시의 의미를 각이한 언어환경에서 어떻게 찾아내고 언어환경을 리용하여 어떻게 표현하겠는가를 연구한다.

또한 지시의 연구대상으로는 담화(discourse)에서 어느 한 부분 또는 어느 한 측면의 지시정보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겠는가를 연구한다. 말은 일정한 시공간속에서 진행되는것만큼 담화지시는 시간지시와 장소지시와 밀접한 관계속에서 연구한다.

사람의 언어교제의 목적은 각이한 언어환경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투쟁속에서 자기의 언어행위를 적중하게 표현하기 위한다 있다.

언어가 가지고있는 사람들사이의 사회교제적기능은 사회교제정보에 의하여 담보되며 사회교제정보는 그속에 들어있는 사회교제지시 즉 사교지시에 의하여 표현된다. 따라서 사교지시도 지시의 주되는 연구대상으로 된다.

따라서 영어지시어는 인칭지시어(person deixis), 시간지시어(time deixis), 장소지시어(place deixis), 담화지시어(discourse deixis), 사교지시어(social deixis)로 나누어 설명된다.

2.6. 영어어용적전제

언어정보교환이 이루어지자면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서술내용의 사실여부가 미리 인정되거나 진리성을 가지기 위한 필요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어용론에서 말하는 전제이다.

어용론에서 말하는 전제는 그 어떤 결론을 끄집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되는것도 아니며 추리의 필수조건으로 되는것도 아니다.

어용적전제는 일종의 어용적추리리론으로서 그것은 실지 언어구조의 의미를 근거로 하고 논리적개념, 의미, 언어환경 등에 의거하여 말의 선결조건을 추리하고 판단하는것이다.

다음의 실례를 분석해보자.

Ann: Where's my bottle of milk, Sarah? (썰러, 내 우유병이 어데 있니?)

Sarah: I felt hungry. (난 배가 고팠댔어.)

이 대화에서 썰러가 우유를 마셔버렸다는 어용적의미를 추리해낼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배가 고프면 음식이 반드시 요구된다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썰리가 우유를 마셨다는 어용적의미를 추리해낼수 있게 하는 어용적전제이다. 이 전제가 선결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면 언어교제를 하는 쌍방이 서로 협조하여 공동으로 이해할수 없으므로 말의 어용적의미를 추리해낼수 없는것이다.

어용론적각도에서 전제를 설명할 때 중요한것은 전제의 타당성과 공지성을 고려하는것이다. 바로 이 두가지가 어용적전제의 특성으로 된다.

2.7. 영어교수실천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들

어용론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그 성과를 영어교수실천에 구현하는것은 교육내용을 풍부히 하고 깨우쳐주는교수방법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영어교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어용론적원리와 규칙에 따라 해설하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영어발화행위에 대한 어용론적분석, 영어회화구조에 대한 어용론적분석 그리고 기타 문제들에 대한 어용론적분석을 진행하는것이다.

2.7.1. 영어발화행위에 대한 어용론적분석

발화행위란 일반적으로 발언을 통하여 수행된 사회적행위를 말한다.

발화행위의 개념은 발언의 문장구조나 그의 논리의미적분석에만 의거해서는 발언자의 진의도를 확정할수 없다는데로부터 나온 개념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발언자의 의도가 언어를 통하여 정면에 직접적으로 표면화되었는가 아니면 숨겨져 간접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것이다.

이에 따라 발화행위는 직접발화행위와 간접발화행위로 나누어진다.

직접발화행위는 단어들을 발음하여 입밖에 낸것으로서 문장에 쓰인 단어들이 문자 그대로 나타내는 의미를 표현한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에 의하여 수행된 간접발화행위는 이러한 발언을 통하여 문맥에 따라 충고, 위협, 제의와 같은 발언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발화행위리론에서는 외적문맥인 언어정황이 언어체계내에서의 내적문맥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며 따라서 언어체계보다 언어행위를 우선시한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의 기본형태는 《무엇을 말한다》는것으로 되므로 동사 say(말하다)의 어휘적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실지언어생활에서 보면 say는 크게 두가지 의미로 쓰인다. 이에 대하여 다음의 실례를 분석하여보면 알수 있다.

례: ① Say it again. (그것을 다시 말해보시오.)

② Say CHEESE again. (치즈라고 다시 말해보시오.)

례에서 ①의 say는 보통 말하는 일반적의미인 《말하다》이며 《의미내용의 전달》이 중심으로 된다. 이때의 say를 say1이라고 하자. ②에서 say는 《발음기관을 움직여 말소리를 내다》라는 부분에 한정되어 사용되었다. ②는 표면적으로는 /tʃi:z/라는 소리를 낼것을 요구하는것으로 되어있지만 사진을 찍을 때의 언어환경과 련관시켜보면 《Smile!》(웃으시오!)라고 말하는것으로 된다. 이때의 say를 say2라고 하자. say1과 say2는 이처럼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본질에 있어서 세가지 행위를 수행한다고 볼수 있다. 그 한가지는 일정한 의미 또는 명제가 담긴 말을 하는 행위이고 다른 한가지는 그 말을 통하여 말하는 사람의 목적이나 의도를 전달하는 행위이며 또 다른 한가지는 이 말을 통하여 듣는 사람에게 일정한 영향과 자극적인 효과를 주는 행위이다.

다음의 실례를 분석하여보자.

례: (《ㄱ》라는 사람이 《ㄴ》라는 사람에게)

You have left the door wide open. (문을 활짝 열어놓았군.)

이 경우 《ㄱ》는 하나의 진술행위를 한것이다. 이것이 문맥상으로 보면 《ㄱ》는 《ㄴ》에게 문을 닫으라는 요구를 한것이며 따라서 《ㄴ》가 문을 닫게 되면 이 발화행위는 세가지 행위를 한것으로 된다.

이 실례에서 그 말자체가 가지고있는 어음, 의미, 문장론적특징을 표현한것, 이것을 진술행위 혹은 발언행위라고 하며 이 말을 통하여 나타낸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문을 닫으라는것)을 전달한것은 의도행위 혹은 발언내행위라고 하며 이 말을 듣고 《ㄴ》가 문을 닫는 행위를 한것을 효과행위 혹은 발언매개행위라고 한다.

진술행위는 전통언어학의 의미론대상에 가깝고 효과행위는 심리적요인, 사회적요인 등과 많이 관련되어있으므로 주로 심리언어학 또는 사회언어학에서 연구되어야 할것이다. 두번째 발화행위인 의도행위는 어용론에서 연구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된다. 그것은 이 의도행위가 언어의 사용형식과 관련되어있고 언어정황이 아무리 복잡하여도 일정한 예측으로 그 의미를 밝혀낼수 있기때문이다.

한 문장형식이 여러가지 어용적의미를 나타내는 힘을 발화의 힘 또는 발언력(illocutionary force)이라고 한다.

발화의 힘에 따라 의도행위는 보고, 진술, 단언, 알림, 명령, 초청, 요청, 제의, 충고, 물음, 제공 등 여러가지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발화의 힘에 따라 효과행위를 풀이하면 만족주기, 성나게 함, 안심시키기, 감명을 줌, 당황케 함 등의 효과라든가 영향이나 결과가 나타난다.

한 문장형식이 여러가지 다른 발화의 힘을 나타내기도 한다.

례를 들면 명령문이 문맥이나 언어정황에 따라 명령, 권고, 충고, 초청, 협박 등의 발화의 힘을 나타낸다.

례: Lend me 10 Euros. (명령)

Have another beer. (권고)

Don't drink water too much. (충고)

Don't move or you will be shot. (협박)

또한 의문문으로 질문뿐만아니라 언어정황에 따라 요청, 초청, 제의, 부탁, 사죄, 감탄 등의 발화의 힘을 나타낸다.

한가지 문장형식이 여러가지 의도행위를 수행한다는것은 그 문장형식과 의도행위가 일치할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무질서하게 일어나는것이 아니며 거기에도 일련의 규칙이 있게 된다. 즉 어떤 문장형식에 어떤 의도행위가 대응된다는것은 정해져있다고 보아도 된다.

2.7.2. 영어회화구조에 대한 어용론적분석

우리는 영어회화에서 사람들이 진행하는 발언의 형식이나 흔히 있는 잘 짜이지 못한 시작, 비정상적인 휴지, 발언의 중복이나 더듬기 같은것이 어떤 의미를 띠고 어떤 역할을 노는가 등 영어회화의 본문구조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

어용론의 관점에서 회화본문구조를 분석할 때 린접쌍발언, 말차례바꿈, 예비제시발언, 삽입발언, 발언수정 등과 같은 여러가지 구조격식을 설명하게 된다.

① 린접쌍발언

회화분석리론에서는 린접쌍발언을 교제속에서의 회화의 기본구조단위로 보고있다.

린접쌍발언(adjacency pairs)이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회화진행중에 순차적으로 한두개의 발언 다시말하여 첫번째 발언과 그에 대한 일종의 응답으로 되는 두번째 발언으로 이루어지는 발언을 말한다. 발언들이 서로 나란히 놓여있으면서 항상 쌍을 이룬다고 하여 린접쌍발언이라고 한다.

하나의 린접쌍발언을 이루는 발언들은 첫 부분과 두번째 부분으로 되어있다.

어떤 발언이 어느 한 린접쌍발언의 첫 부분으로 되는 조건에서는 다른 또 하나의 발언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린접쌍발언의 두번째 부분이다.

린접쌍발언의 실례로는 인사-인사, 물음-대답, 요구-응답과 같은것들을 들수 있다.

하나의 린접쌍발언을 이루는 두 부분의 발언들은 서로 조건상 련관속에서 해석되면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린접쌍발언의 첫 부분으로 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두번째 부분으로 되는 발언이 어떻게 될수 있겠는지 하는 점을 예견할수 있다.

린접쌍발언은 회화가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하는것과 관련한 여러가지 순차적의미를 담고있다.

우선 린접쌍발언은 회화에 참가하고있는 사람들이 언제 자기 말차례를 잡아야 하고 언제 다음사람에게 말차례를 넘겨주어야 하는가를 암시해준다.

일단 한 사람이 린접쌍발언의 첫 부분으로 되는 발언을 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자기 말차례를 넘겨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사람이 하는 발언은 린접쌍발언의 첫 부분과 관계가 있는것으로 보기때문에 두번째 사람의 발언을 통하여 먼저 발언한 사람은 그가 자기 발언을 옳게 해석하였는가 하지 못하였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첫번째 발언자는 다음사람의 발언으로부터 그가 자기 말을 잘못 이해하고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발언을 조정할수 있다. 다음의 실례를 보면 이런 관계를 잘 알수 있다.

례: John: So, there's no production conference this afternoon.

(그러니 오후엔 생산협의회가 없단 말이지.)

Bill: Oh, no? (예? 없습니까?)

John: No, I don't know. I thought you know.

(아니요, 난 모르오. 당신이 알고있다고 생각했는데.)

Bill의 발언으로부터 그가 앞의 발언을 정보로 해석했다는것을 알게 되자 John은 그것이 질문을 한 의도였다는것을 다시 알려주고있다.

또한 린접쌍발언은 린접쌍발언의 첫 부분으로 되는 발언이 있는 다음 두번째 부분 발언을 하지 않은것조차도 첫 부분과 결부시켜 그 내포된 의미를 해석할수 있게 한다.

린접쌍발언은 또한 회화의 총체적인 흐름과 관련한 순차성의 의미도 담고있다.

회화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발언은 린접쌍발언의 견지에서 두번째 부분까지 완료된 다음에야 해당한 화제를 끝내고 새로운 화제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화제가 더 없다면 전체적인 회화를 마무리할수 있다.

② 말차례바꿈

회화의 기본단위는 일회발언(turn)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회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교차발언으로서 한 사람이 일단 자기의 일회발언을 끝내면 그 순간부터 상대방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된다는것이다. 따라서 일회발언이란 다른 사람에게 발언권을 양보하거나 넘길 때까지의 발언을 말한다. 만일 회화가 계속되는 경우 일회발언이 끝난 다음 또 다른 일회발언이 시작되며 이러한 돌림차례는 회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례를 들어 《ㄱ》가 말하다가 끊으면 《ㄴ》가 시작해서 말하다가 끊는다. 이렇게 하여 《ㄱ》-《ㄴ》-《ㄱ》-《ㄴ》과 같이 두 사람사이의 말차례가 계속 바뀌면서 회화가 계속된다.

회화에서 특징적인것은 한번에 한 사람이 말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회화참가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서로 말할 순서가 할당되고 그에 따라 자기 자신이 말할 순서를 어떻게 차지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차례바꿈수법이라는 개념이 설정되게 된다.

말차례바꿈수법이란 일상회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대화흐름의 순서가 바뀌어짐으로써 한 사람이 일단 자기의 일회발언을 끝내면 그 순간부터 상대방이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자기는 말을 듣는 사람으로 되는 언어교제의 수법을 말한다.

회화에서 종종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거나 또는 한사람도 말하지 않는 경우에 대화참가자들은 그 상황을 수습하고 한명이 발언할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며 오직 한사람만이 발언하도록 한다.

례: Ann: We: ll I wrote what I thought was a a — a rea: s'n//ble explanation...

Bill: I: think it was a very rude letter.

(: — 한 발음을 길게 소리낸다는 표식

// — 말겹침이 일어나면서 다음발언자가 발언하는 시점)

이 실례에서 빌은 앤이 말하는 도중에 말을 가로채며 말하여 말겹침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자 앤은 자기 발언을 중지하여 빌이 말하도록 하였다.

회화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정해져있어 말차례바꿈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것과는 달리 다음에 발언하게 될 사람이 정해져있지 않을 때도 있다. 이 경우 현 발언자의 역할에 따라 다음 발언자가 정해진다. 이때 현 발언자는 다음 발언자로 될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지적하여 누가 말을 넘겨받아야 하겠는가를 암시한다.

례: Ann: You haven't got just one more apple, have you, Tomy?

(사과 한알 더 들지 않았구나, 토미?)

Tomy: Yes, there you go. (아, 됐습니다.)

현 발언자가 발언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발언자를 선택하는것은 그에게 그런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특정한 권한이 부여되어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항상 현 발언자에게 이런 권한이 부여되어있는것은 아니며 각이한 언어정황에서 회화는 여러가지로 진행되게 된다.

③ 예비제시발언

예비제시발언 (pre-sequences)이란 자기 의도를 먼저 일부 말마디로써 예비적으로 중
 떠보기를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그 어떤 발화행위를 진행해도 되겠는가고 알아보는 발언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예비제시발언이란 그자체가 회화의 기본부분은 아니지만 기본부분으로
 이끌어주거나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데 리용되는 준비발언이다.

레: Jim: Hello, what are you doing?

Mike: Nothing.

Jim: Want to play chess?

Mike: Great!

우의 실례에서 짐이 처음 하는 말은 마이크를 초청하겠다는것을 미리 제시하였기때문
 에 마이크의 대답과 그다음에 오는 짐의 초청이 어울리는것이다. 마이크가 말한 《Nothing.》
 은 마이크에게 시간이 있다는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때문에 Jim으로 하여금 초청을 순조롭
 게 제기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회화참가자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발언에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자기 발언
 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비제시발언을 한다.

예비제시발언은 진술내용과 진술목적에 따라 요청전예비제시발언, 초청전예비제시발언,
 선언전예비제시발언, 끝맺기전예비제시발언 등으로 나누어진다.

④ 삽입발언

대화의 전형적인 형식은 하나의 물음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다. 즉 Q-A이다.

그런데 일상대화에서 사람들은 때때로 이러한 대화형식을 어기고 대화사이에 삽입발
 언(insertion-sequences)을 첨가시키게 된다. 이 경우 대화는 《질문1-질문2-대답2-대
 답1》의 형식을 띠게 되며 바로 이 가운데에 끼운 린접쌍발언(adjacency pairs)인 《질문2-
 대답2》를 삽입발언이라고 부른다.

일상회화에서는 질문과 대답사이에 일정한 균형이 보장되고있다.

레: Q1: May I have a bottle of Mich? (질문1: 미취술 한병 살수 있습니까?)

Q2: Are you twenty one? (질문2: 나이가 21살입니까?)

A2: No. (대답2: 아니요.)

A1: No. (대답1: 그러면 안됩니다.)

삽입발언구조는 대화흐름에 따라 확대될수 있다. 이처럼 확대된 삽입발언구조를
 다회교차삽입발언이라고 한다.

⑤ 발언수정

대화과정에 진행되는 부단한 말차례바꿈을 통하여 대화자들은 서로의 발언으로부터 자
 기의 통신적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었는가를 판별할수 있다. 통신적의도가 잘못 전달된 경
 우에는 제대로 리해하도록 자기가 이미 한 발언을 수정하게 된다.

레: Ann: This dress fits you right. (이 옷이 당신에게 꼭 맞습니다.)

Bill: But the sleeves are not long enough. (그런데 소매가 좀 짧은데요.)

Ann: Oh, I mean the colour. (아, 나는 색깔이 맞는다는것입니다.)

발언수정과 관련하여서는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말에 수정을 가하는 경우와 듣는

사람측에서 수정을 요구하여 수정하는 경우 그리고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발언에 수정을 가하는 경우와 말하는 사람이 시작한 수정을 듣는 사람이 진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교제과정에는 수정작업을 하는데 알맞는 대목들이 있다.

첫번째 대목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발언으로 이루어지는 말차례의 이행관련시점(transition relevance place) 바로 전이다. 이 대목에서는 발언자 자신이 수정을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다.

두번째 대목은 이행관련시점 다음 말차례바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성되는데 여기서도 발언자가 수정을 진행할 수 있다.

례: I have to leave at one – oh, sorry two I mean. (난 1시에 떠나야 하오. 아, 미안하오. 2시요.)

실례에서는 one 다음이 말차례바꿈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인데 말차례바꿈이 있기 전에 발언자가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

우에서 언급한 수정에 적절한 대목들은 교제속에서 순차적으로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첫번째 수정의 기회를 놓쳤을 때에만 두번째 수정의 기회가 기회로서 유효하게 되며 두번째 기회를 놓쳐야 세번째 기회가 유효하게 된다. 이 순차성의 특성은 수정의 기회를 리용함에 있어서 대화자들이 어느 기회를 우선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3. 결 론

학생들의 외국어회화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교수내용과 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발화행위와 회화구조에 대한 어용론적분석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앞으로 어용론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외국어교육의 과학리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원리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외국어교육에서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할 것이다.

실마리어 어용론, 어용적의미, 언어환경, 지시어, 어용적전제